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박선영\*

## 초 록

2020년 코로나19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처음 겪는 코로나 여파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가 촉발시킨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가 촉발시킨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둘째,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 청소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공식 보고서와 관련 홈페이지의 문서를 활용하여 청소년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유럽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기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방안의 탐구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때 디지털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한 대면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는 공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확장과 재개념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주요어** : 포스트 코로나, 청소년지도, 청소년정책, 비대면 청소년활동, 디지털 청소년활동(지도)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2019년 12월경 시작된 코로나(Covid 19) 사태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심각한 위기와 변화를 초래 하였다. 2020년은 사상초유라는 말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과 사회에게 크고 작은 특별한 경험을 안겨준 해로 세계사에 길이 남게 될 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UN 사무부총장 Amina J. Mohammed은 코로나 위기가 기존 우리 사회의 약함과 불공정을 노출시켰다(European Youth Forum, 2020)고 강조하며 코로나 이전 우리가 간과해왔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즉, 코로나가 촉발한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 우리가 간과하던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으므로 바야흐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학적, 사회적, 환경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가 인간의 삶에, 특히 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가 청소년을 비롯한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중의 하나는 언택트(untact) 혹은 온택트(ontact) 시대의 일상화라는 것이다(손숙미 & 이인화, 2020:385). 이러한 온택트, 언택트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촉진을 가속화 하여 인류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새로운 수준의 과학혁명과 정보통신사회로 강제 이주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원격 근무, 온라인 쇼핑 등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문화를 수시로 창조해 내고 있으며 세대에 관계없이, 성별과 직업에 관계없이 뉴노멀(new normal), 즉 일상의 변화된 가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이끌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고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은 설령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 인류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문화 등의 양식으로 복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19) 시대를 기획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처럼 8·15 광복절 집회를 통한 2차 대유행을 겪은 국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with Covid 19), 즉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 코로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대처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코로나가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지역, 계층은 없겠지만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 다시 말해 코로나 부작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공교육에 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국가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재빠르게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교육공백을 최소화하였고 더 나아가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탈피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UN, 2020). 교육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해보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의 전통적인 비효율성을 개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이에 대한 창조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도 한다(최성철, 2020). 특히 IT 강국이자 코로나 대응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해내고 있는 한국은 공교육 환경 역시 IT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집중적 예산 지원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한국 교육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해오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 수험능력시험이 시행될 정도로 공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될 수 있으나 있으나 그 결과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서의 공교육의 위상과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과 학업성취, 상급학교 위주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강화된 것이기도 하며 온라인 체험활동이 주는 한계로 인해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대처할 수 있는 현장체험형 교육은 가상의 공간으로 대신하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 ‘Learning by doing’ 이라는 참여형, 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점차 잊히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온라인으로의 전환, 혹은 원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 학업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참여형, 체험형 중심의 학교 밖 청소년활동, 즉, non-formal education, informal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지도는 외면 받고 있다. 학교 밖 교육의 중단은 사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Youth Partnership, 2020). 한국에서의 학교는 폐쇄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가며 학생들의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아예 폐쇄정책을 써서 개관을 할 수 없다.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나 1.5단계인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위탁하는 시설들은 안전을 이유로 아예 개관을 못하거나 개관을 해도 최소한의 인원만이 청소년기관을 이용하거나 긴급 돌봄이나 긴급보육을 위한 공간으로만 허락하기도 하였다.

2020년 6월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시설들은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청소년기관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개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큰 상황이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 청소년 이용료나 평생교육 이용료로 충당되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큰데, 학교 단체가 이용하는 이용료가

주요 재정 수입원이던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등의 경우 청소년과 일반인의 이용이 전무하다시피 해 기관운영을 위한 재정보로는 물론 청소년지도사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청소년지도사의 비자발적 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센터, 청소년단체들이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직업고용유지와 가능성에 대해 어려움에 봉착해있다(UN, 2020).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활동의 나아가야 할 길과 과제, 그리고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청소년기관들이 자구책으로 다양한 온라인 청소년활동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청소년활동이 비록 실시된다고 하여도 의무교육도 아니고 선택적 활동, 여가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입시위주의 활동에는 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이라는 유엔(UN) 산하의 시민사회 연합조직의 2020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학교 밖 교육이나 청소년활동 참여의 감소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교육의 공백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청소년활동 같은 informal learning이나 non-formal learning의 공백이나 부족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축소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학교 중퇴율을 높일 것이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범죄와 학대 같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2020:8).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활동이 자의적 혹은 자의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UN의 이러한 입장이 반갑지만 마냥 반가워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이론적 토대의 구축은 물론 실행 가능하고 창의적인 대안의 도출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연구방법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연구는 코로나가 촉발시킨 새로운 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로 예상되는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둘째,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 이후 청

소년활동에 필요한 정책과 과제,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운영, 청소년활동의 내용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는

- 코로나가 촉발시킨 청소년의 문제는 무엇인가?
-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은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는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홈페이지와 공식 정책 자료, 공식 연구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UN)과 유엔 산하 연구기관이나 공동연구단체와 유럽연합, 유럽평의회는 코로나 대응 공식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고, 유럽 내 민간단체의 연구보고서는 맥락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만 확인하였다. 분석된 유엔의 전 세계 코로나 대응보고서 중에서는 한국도 참여하여 한국의 실태와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으로 사용된 문헌자료는 유엔 출판물 홈페이지나 유럽연합의 공식 보고서 아카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고, 연구보고서 활용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문헌으로만 선택하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II.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sup>1)</sup>과 청소년의 문제

### 1.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 1) 코로나가 청소년에 미친 영향: 교육과 복지 실태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에 관한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입시위주의 치열한 교육 경쟁으로 줄곧 이슈가 되어 왔다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교육, 특히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초등교육 재학율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 수준에서 개선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억 5천만 명 가량의 어린이가 학교에 재학 중이지 못하며, 거의 8억 명에 가까운 성인 문맹률이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억 8천 7백만 명에 해당하는 어린이(약 56%에 해

1)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항의 청소년활동의 정의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Youth Work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이고 적극적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의미한다.

당)들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된다(United Nations, 2020:5).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공정과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손지희, 2020:75). UN은 저개발국가와 선진국가의 교육 지출 비용도 더욱 격차가 커질 것이며 저개발 국가의 경우 기본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기초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된다면 성인 문맹율을 증가시킬 것이어서 이러한 교육격차의 심화 역시 코로나 이후 잠재적인 문제를 양산해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United Nations, 2020:5). 한국처럼 의무교육과 기타 모든 공교육에서 높은 재학율을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한 학교 봉쇄와 교육 결손의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손지희, 2020:75) 저개발국가는 저개발국가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장기적으로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학교 봉쇄와 등교제한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등학교에서 대학, 그리고 성인 학습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에서 초, 중, 고 대학생의 94%가 코로나와 교육 결손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5).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교교육의 결손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생물학적 발달은 물론이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단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020).

한국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제한적 학교 등교로 인해 결식아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손지희,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적 교육기회의 불평등(gender inequalities)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저개발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때 딸의 교육을 중단할 확률이 높으며, 아동 노동이 더 강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난민이나 이민자,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학업에 대한 결손과 건강상의 피해 이외에도 사회적 교류의 단절로 아동 청소년에게는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United Nations, 2020:6).

이상의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은 코로나로 인한 학교 봉쇄 기간에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원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United Nations, 2020:14). 한국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초등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였지만 성공적인 원격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장비의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디지털 문해 역량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에 대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뉴 노멀(New Normal)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임경화, 2020)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에게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사운영 일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United Nations, 2020:17). 다만 한국처럼 이미 청소년이 과도하게 온라인과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은 스마트 기기의 노출을 더 장기화하고 악화시킬 수 있어 신체건강과 스마트 기기 중독이나 과의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오재호, 2020:16).

## 2) 한국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과 대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 e 청소년 홈페이지에 코로나 19 대응 청소년 안내에 관한 메뉴를 추가하여 기존의 방식과 다른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 19 이후 청소년시설과 현장에서 안영하는 다양한 비대면 활동,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https://www.youth.go.kr/youth/act/actOper/actBoardIntor.yt?curMenuSn=1818>, 검색일 2020.12.04.).

e 청소년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2020년 12월 4일 기준으로 470여개가 있었으며, 코로나 19 대응 운영사례 역시 40여개가 업로드 되어 있다. IT 강국이자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을 보유한 국가답게 청소년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 청소년 홈페이지는 비대면 혹은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활동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은 물론 활동 영역(건강/스포츠, 모험개척, 역사탐방, 환경보존, 문화예술, 봉사협력, 교류, 과학정보, 진로탐구, 자기개발, 기타 등), 지역, 기관유형, 참가대상, 연령, 숙박형태, 활동분류(일반, 방학 중, 수능 후, 자치, 동아리), 활동시기, 참가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이 가능한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맞춤형 선택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단에는 인증프로그램 여부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 역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정부차원에서 비대면 혹은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유외의 다른 지원은 찾아볼 수 없어 청소년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 3) 유럽의 청소년활동/청소년지도 공동 코로나 대응

#### (1)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공동 파트너십 구축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20년 9월 코로나가 유럽 전역의 청소년과 청소년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covid-19-impact-on-the-youth-sector>. 2020.12.06. 검색) 이 공동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 네트워크에는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내 청소년정책 전문가, 청소년 관련 연구자, 청소년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지역봉쇄가 청소년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제에 놓이지 않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와 디지털 청소년사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이었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WKK6JkPHw0qbFW7d2pkixsOCtjOYRSdpVNzgLRY5RX2AKg/viewform2020.12.06>. 검색). 뿐만 아



나라 코로나는 특정 국가에서만 상황이 아니라 넓게는 전 지구적으로 겪는 최초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공동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가 청소년에 미친 여향은 현재에도 크지만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협력하여 여러 층위에서의 다방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Youth Partnership, 2020:1).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제안한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현장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두 번째,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국의 온라인 활동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세 번째 목적은 청소년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그 외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의 필요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소년 기관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팬데믹 시대에 청소년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지원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Youth Partnership, 2020:2).

유럽연합이나 유럽평의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에 있어 유럽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제정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의 공동대응이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한국과 달리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다만 유럽의 청소년기관들도 코로나로 인해 민간부분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대부분 축소되어 민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던 사업이 중단된 것은 한국과 같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유럽차원에서 청소년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온라인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전국적인 실태조사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나 정책수립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2) 코로나 이후 유럽 청소년 현장 실태조사

전술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파트너십은 아래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이 조사는 코로나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역봉쇄에 들어갔던 7월 1일부터 한 달간 이루어졌다(Youth

Partnership, 2020:1). 실태 조사 영역은 아래와 같다.

- Funding for the youth sector(청소년현장에 대한 펀딩 현황).
- State operated programmes, youth work services and other supports for young people(국가주도의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서비스,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현황)
- NGO sector programmes, youth work services and other supports for young people.(NGO 주도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서비스,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현황)
- Young people - impact on and response of young people to the lockdown(청소년- 지역봉쇄로 인한 영향과 반응).
- Policy - implications for future youth policy resulting from the lockdown(지역봉쇄로 인한 미래 청소년정책 시사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WKK6JkPHw0qbFW7d2pkixsOCtjOYRSdpVNzgLRY5RX2AKg/viewform2020.12.06>. 검색).

위의 조사에는 유럽협의회 회원국 중 48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이중 18개 기관은 단일 지역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이었으며, 14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구였으며 10개의 기관은 한 국가의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기관이었다. 이들의 83%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을 위한 기관이었고, 46%는 인권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45%는 청소년 정책분야에서 일하는 기관이었다. 이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 모든 주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연기와 아웃리치 활동의 감소,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감소 등이 포함되었고, 대부분의 청소년활동 사업 중, 자원봉사나 이동과 교류를 전제로 했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고 조사되었다(Youth Partnership,2020:2).

코로나19가 유럽 청소년현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중의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로 인한 프로그램의 취소와 연기인데 특히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이나 청소년지도자들도 사업의 취소와 연기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계획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Youth Partnership,2020:3).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

로 전환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기반 시설의 부족과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문해역량 부족, 익숙하지 않은 사업 환경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어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청소년 기관들에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재정에 관한 문제였다. 팬데믹 이전에 유럽의 청소년기관들은 참가비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프로그램과 사업위주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비록 온라인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기관에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시적인데다가 예산 지원의 대상 프로그램이 긴급 복지지원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취미, 여가 등의 주제 프로그램들은 예산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Youth Partnership, 2020:3).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청소년기관의 어려움이 지자체나 국가 단위의 지원에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출을 통해 청소년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 역시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기관을 비롯한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재정확보이다. 그리고 재정확보를 통한 역량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의 성패가 달린 것이라는 국가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 : 디지털 Youth Work(청소년활동)으로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에서 디지털 Youth Work(청소년활동)으로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코로나 시대를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Digital Youth Work, 즉, 디지털 청소년활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7). 디지털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지도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단지 청소년활동지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디지털 활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며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지역 사회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청소년 활동의 목적(NYA, 2020:2))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청소년활동은 대면활동과 비대면 온라인 활동 모두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실행될 수도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나 테크놀로지 자체는 도구이자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청소년활동 역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 지향하는 윤리, 가치, 원리를 추구하며 디지털 활동은 청소년지도자와 자원봉사자 등, 청소년지도를 하려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활동이다. 이렇듯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국은 청소년활동의 확장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와 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행 등의 영향으로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체계나 대응에 있어 한국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청소년활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한국보다 앞서, 2020년 3월 혹은 4월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영국의 전국청소년활동(사업)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는 홈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단계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기관의 대응수준을 제시하였다(National Youth Agency, 2020). 더 나아가 청소년기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자가 후원금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안내하고 있었다(<https://nya.org.uk/guidance/> 2020.11.30. 검색). 즉, 코로나19 시기에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화 관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보다 거의 10년 전부터 비대면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신속하게 비대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2020)은 전 세계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인의 관점에서 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다루어졌으나 사실 청소년에게 미치는 건강의 문제와 건강이외의 문제가 성인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코로나는 존재하는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취약계층의 문제점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 배제에 빠질 확률이 높은 위기 청소년 집단 맞춤형 활동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게 될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 디지털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강화

영국 청소년활동협회(National Youth Work Agency)는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 청소년복지의 역할은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NYA, 2020). 즉,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며 청소년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이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서 문제를 해결할 어른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NYA, 2020:19). 영국 청소년활동협회는 영국 청소년 중 백만 명 이상이 코로나19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악화 시켰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2백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NYA, 2020:19).

코로나19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위기 청소년에게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폐쇄될 경우 특정 위기에 처해있고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만들 대상으로 학교를 개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청소년기관의 부분적 개관을 통하여 특별지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NYA, 2020:20).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청소년기관은 학교나 가정에서 정상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와 혹은 코로나 이후에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 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NYA, 2020). 학습결손은 물론 가정폭력, 학대, 방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관련한 부

작용을 수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재개방되고 정상화 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요구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가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보살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 청소년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 1. 포스트 코로나에서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현실로 인식하게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어 초연결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예측되곤 했는데(김은경 & 문영미, 2016),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디지털 세상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하였다. 물리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전 세계가 초연결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맞게 더욱 새로운 생존기술과 생존역량을 보유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대면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지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설령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진 청소년 세대가 대면활동의 현장을 더 선호하게 될지 또한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활동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대면활동과 비대면활동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여 더 많은 선택권과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청소년활동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 청소년활동정책에서부터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이 디지털 문해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관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설과 장비의 디지털화가 동반되지 않으며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일부로만 전략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0년 여름 이후 발 빠르게 수련활동인증제 개편을 통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인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비대면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개발 및 보급을 넘어 청소년기관의 디지털화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청소년활동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청소년활동을 초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많은 회원국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기관 운영에 있어 재정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유럽연합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의 재정협력 혹은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청소년활동지자 청소년지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의 확장 ; 연대와 협력

유엔의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공교육 학업성취도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교육격차가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이전의 교육격차는 사교육을 필두로 한 경제적인 이유가 주원인이었다고 분석되지만(SKY 입학생의 가정 경제 수준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는 여기에 청소년 개인이 가진 자기주도역량과 창의성 정도에 따라도 또 다른 교육격차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현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이 마치 청소년현장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인하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학교교육과의 거리두기를 설령 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학교교육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더불어,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자기주도 학습역량과 창의성이 부족하여 교육격차를 초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활동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청소년활동협회(NYA)는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catch up’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NYA, 2020). ‘catch up’ 프로그램은 정상적이지 못한 학교생활로 인해 청소년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한다거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다양 분야에서의 보충,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한국의 청소년기관 역시 영국처럼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catch up’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역시 코로나19 이후 더욱 다양해 질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코로나19가 초래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소년기관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 비해 더 작은 규모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이 학교 공교육의 확장과 연장의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지도자의 학교현장 및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나 청소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모델을 통해 청소년기관 자체의 이동성과 확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의 확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수준의 확장과 변화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청소년활동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유럽연합 전역에서 공동 연구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한국 역시 청소년기관들이 “K-청소년활동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청소년기관과 교류하고 협력을 하는 것도 고려함으로써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의 영역과 내용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3. 다양한 공교육환경과 제도를 대비한 새로운 청소년활동 유형 제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한 국가에서 하나의 학사운영 일정으로 교육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 학습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팬데믹 같은 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학사일정을 선택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수능 같은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다양한 일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공교육의 방향과 방법, 심지어 학사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필요할수록, 공교육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활동의 역할이 중



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청소년지도는 공교육제도에 밀려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던 측면이 있었고, 학교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외인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스포츠 등의 지·덕·체의 발달 요소 중 덕(德)과 체(體)의 발달만을 공략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청소년지도에 있어서도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지식 교육)을 비롯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방학을 대비해 운영되던 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이 다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요일제 등교 같은 것도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지도 현장이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인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청소년지도 분야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안전의식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 안전을 위해서도 소규모 활동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는 더 이상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와 이후에도 학교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학교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방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가 정상화된 이후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된 학생들 대상의 추가 지원교육이 있어야 교육의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 이후 학교교육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의 영역과 역할 역시 다양해져야만 한다. 청소년활동은 학교의 안전과 관련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 4. 정부주도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재인식과 청소년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다 보니 교육계에서도 밀린 공교육의 결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학교교육에 밀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수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시기에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현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청소년활동 체계는 물론이고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지원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장에서 언급한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겪으며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의 종류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생태계의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난 30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기관의 양적 질적 발전이 있어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배출에 있어서도 양적 증가추세에 있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생태계는 청소년기관 폐쇄나 비대면 청소년활동으로의 전격전환 등으로 인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청소년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청소년복지 전달을 담당할 최전선 기관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증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청소년이 드나들지 못하는 기간에는 단순한 비대면활동 실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기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적극적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청소년활동협회는 코로나19 단계별로 청소년기관의 운영 수준을 제시하고 단계별 활동사례와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였다(NYA, 2020). 그 결과 청소년기관은 완전 지역봉쇄로 인해 청소년기관이 개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기관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사회 봉쇄기간에도 청소년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들 중에 많은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처럼 청소년기관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청소년기관들은 유럽연합 주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청소년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유럽연합은 특별 예산을 마련하여 청소년기관들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한국도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마련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생태계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퇴직 증가와 청소년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면 새로운 생태계를 배양하는 것은 지난 30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설령 코로나 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코

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멈추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영국이나 유럽의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청소년 개인의 행복한 발달에 그치지 않는다, 즉 청소년지도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4). 그러므로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원은 단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성찰과 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은경 & 문영미 (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6-69,
- 손숙미, 이인화 (2020). 1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성평등. 선진화 정책시리즈, 384-396.
- 손지희 (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교육시스템. 진보평론, (84), 74-93.
- 송민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의 미래 변화: 디지털변혁 성공요소로 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대응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5-107.
- 송민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산업 생태계 변화. 방송과 미디어, 25(4), 9-17.
- 오재호 (2020).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 1-2
- 임경화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학 교육의 활성화. 기계저널.60(7). 26-31.
- 최성철 (2020). 마음껏 상상해보는 코로나 이후 수업의 변화. ie 매거진, 27(2),
-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2020). Covid-19: Working with and for young peopl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European Commission(2014). Working with young people: the value of youth work i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2017). Developing digital youth work.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 Youth & Covid-19: Impacts on jobs, education, rights and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National Youth Agency(2020). INSIED OUT Young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a Response to COVID--19. National Youth Agency
- National Youth Agency(2020). Managing youth sector activities and spaces during COVID-19. National Youth Agency
- National Youth Agency(2020). Out of Sight? National Youth Agency
- United Nations(2020).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United Nations.
- Youth Partnership (2020). Impact of COVID-19 on young people and on the youth sector.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 European Youth Forum(2020) The European Youth Blueprint to Recovery. European Youth Forum. <https://www.youthforum.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pdfs/blueprint.pdf>
- Youth Partnership(2020). Briefing 1: An Introduction to Research on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Youth Sector.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Briefing+1\\_+An+introduction+to+research+on+the+impact+of+Covid-19+on+the+youth+sector+.pdf/9b998ba2-d905-6464-80d7-06c532f2e0c9](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Briefing+1_+An+introduction+to+research+on+the+impact+of+Covid-19+on+the+youth+sector+.pdf/9b998ba2-d905-6464-80d7-06c532f2e0c9)
- Youth Partnership(2020). Effect of Vovid-19 across youth work and youth activities.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CMJ+survey+PEYR+final.pdf/3bae8038-2744-c280-6cae-08d670b8489e>
- Youth Partnership(2020).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youth sector.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Summary+13+Oct+2020.pdf/c8808ff7-25be-f7f9-3504-b2a189a64bd0>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WKK6JkPHw0qbFW7d2pkixsOQtjOYRSdpVNzgLRY5RX2AKg/viewform>

<https://en.unesco.org/news/survey-how-covid-19-has-affected-youth-youth-researchers-project>

<https://en.unesco.org/news/survey-how-covid-19-has-affected-youth-youth-researchers-project>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YP+covid19+RAY.pdf/4f9f2fcf-e791-6778-e05f-9694d0e7ee3a>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covid-19>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covid-19-impact-on-the-youth-sector>

<https://rm.coe.int/report-of-the-survey-on-the-effects-of-covid-19-on-young-people-and-yo/16809feae9>

## Abstract

# Challenges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the post COVID-19 era

Sun Young Park\*

Covid-19 has effected a lot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youth centres and youth work agencies are having struggles in the management of youth work due to the for the first time experiences for all.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ways and development of youth work in the new era which had initiated by Covid-19. This study aims firstly, to investigated the issues around young people caused by Covid-19. The second aim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young people and youth work.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aims, this study analysed the official documents from South Korea Youth Work Agency,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uncil of Europe. Research finding are firstly, there were universal problems of youth work around the world especially funding for the youth work management. Secondly, this research found th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overcome aftermath of Covid-19.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reconceptualisation of youth work such as digital youth work, and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preserve and make youth work effective for the future.

**Keywords** : Covid 19, youth work, youth policy, online youth work, digital youth work

투고일 : 2020. 12. 15. 심사일 : 2020. 12. 24. 게재확정일 : 2020. 12. 28.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s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